

되찾은 삼촌*

이해영(2014년 제10회 5·18문학상 수상작)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또 가출한 것입니다. 평소에 즐겨 입던 꽃무늬 몸빼바지와 누렇게 색이 바랜 티를 반듯하게 접어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물건이라고 해봐야 외출할 때 신는 실내화 모양의 단화, 옷 몇 벌이 전부입니다. 아! 삼촌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할머니는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 1호 삼촌은 놔두고 갔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어머니 또 나가셨어요. 숨 좀 돌릴까 싶으면 한 번씩 이러신다니까.”

엄마의 여보 대신 내가 잠에서 깹습니다.

“지수 일어났니? 어휴, 네 아빠는 딸보다도 못하구나. 할머니가 없어졌다는데도 저렇게 자고 있으니, 지수가 아빠 좀 깨워봐라.”

엄마가 내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깨운다는 건, 한 학년 아니 두 학년이나 높은 5학년 수학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아빠는 누굴 닮았는지 아침마다 힘들게 깨워야 해요. 엄마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 수 없지요. 단단히 마음먹고 아빠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네? 할머니 또 집 나가셨대요.”

한참 후에야 흘러내리는 침을 닦으며 아빠가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또 집을 나갔대요.”

“뭐? 또?”

별정계 충혈된 눈을 크게 뜨더니 눈곱도 떼지 않고, 아빠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치매 노인이 왜 그렇게 자꾸 나가는 건지, 지수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아침부터 참..... 빨리 나가봐요. 버스 정류장으로!”

엄마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아빠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내 핑계를 대는 건 좀 비겁해보였어요. 어제 분명히 개고기기념일이라고 말했고, 엄마도 모처럼 여유 있는 아침이 되겠다며 좋아했거든요.

“당신도 서서 말만 하지 말고 나가봤어야지. 꼭 이렇게 아침부터 시끄럽게 해야겠어?”

역시나 아빠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나한테는 친구랑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이럴 때마다 싸웁니다. 서로 으르렁거릴 시간에 벌써 할머니를 열 번은 찾았을 겁니다. 할머니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버스정류장이죠. 치매기가 심해질 때는 항상 그 곳에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온 뒤로 버스가 좋아졌나봅니다. 차타는 걸 좋아하는 삼촌처럼 말이죠. 그나저나 삼촌은 아빠보다 더 잠이 많습니다. 코까지 골면서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발로 엉덩이를 툭툭 건드렸어요. 조금의 양심은 있었는지 삼촌이 하품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할머니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갈 만한 곳은 다 가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삼촌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다녔습니다. 입가에 허영게 침 자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나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삼촌이 늦잠을 자서 씻지 못한 거니까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아빠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요?”

급하게 전화를 받은 아빠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 아빠는 광주할머니 집에 갈 준비를 했어요. 움직임도 불편하고 치매기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먼 곳까지 갔는지, 엄마는 혹시 광주할머니도 치매가 온 것 아니냐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제일 먼저 준비를 했어요.

광주할머니는 미진이와 나처럼 할머니의 단짝친구입니다. 광주 변두리에 혼자 사는데, 나는 그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려가는 길이 멀기도 하지만 방이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도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광주할머니가 5.18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할머니를 많이 도와주셔서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은 인사하러 내려갑니다. 가족이 없는 광주할머니가 불쌍하긴 하지만, 그곳에 갈 생각을 하니깐 벌써부터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나도 갈 거야. 나도 차타고 갈 거야.”

신발도 바꿔 신고 삼촌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차타고 가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잔뜩 신이 난 표정으로 말이죠. 미진이네 삼촌은 책도 사주고, 놀이동산도 데려갑니다.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줍니다. 나는 미진이 가 부럽습니다. 혼자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삼촌을 보면 더욱더 말이죠. 삼촌은 아빠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하는 행동은 서너 살짜리 꼬마입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하는 행동이 어린애 같으니 친구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어렸을 때는 삼촌과 잘 놀았습니다. 소꿉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삼촌과 노는 게 재미없고 귀찮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놀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삼촌과는 할 수 없는 놀이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놀이는 두 팔이 필요한데 삼촌은 오른팔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말하지 않지만, 삼촌이 팔을 잃은 것이 5.18 사건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시위대를 폭도라고 몰아세워 계엄군이 마구 총을 쏘았는데, 바보처럼 구경한다고 돌아다니다가 팔에 총을 맞았을 겁니다. 아니면 시위대 앞에 서 있다가 열떨결에 떠밀려 다치게 됐는지도 모르지요. 머리가 이상해진 것도 어쩌면 그때일 겁니다. 저번에 5.18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삼촌이 아니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정신이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얼굴이 호빵처럼 부어서 피범벅이었는데, 나라도 놀라고 무서웠을 겁니다. 어쨌든 모른 척, 어른들에게 삼촌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5.18 이야기가 조금만 나와도 어른들은 표정이 확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지수야, 삼촌 신발 제대로 신게 도와주고 같이 아빠 차로 와!”

얼마 전 학교에서 나는 어버이날 효행상을 받았습시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엄마는 나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덩치도 큰 삼촌을 도와주라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효행상까지 받은 처지라 싫다는 말을 꼭 참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직 안 왔다. 도훈이, 엄마 보고 싶다.”

차에 타자마자 삼촌이 할머니를 찾았어요.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내 팔을 잡아끌며 어린애처럼 칭얼댔습

니다.

“지금 할머니 찾으러 가는 거잖아. 바보같이…….”

나는 눈을 흘기며 삼촌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윤지수! 삼촌한테 그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야!”

분명히 엄마도 삼촌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둘이 싸우면 항상 나만 혼을 냅니다. 착한 딸이 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엄마의 착한 딸 노릇은 아무나 못할 겁니다. 나는 잠도 안 오는데 속상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자는 척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차 안은 라디오 소리로만 가득했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갑자기 앨범을 찾으셨어요. 옛날 일이라면 입에도 담기 싫어하시는 분이 사진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조용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이번엔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광주까지 내려가셨어요. 더구나 싱크대 선반에 모아두었던 돈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아셨는지 참…….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답답해라, 정말.”

오늘따라 엄마가 아빠 옆에서 짹짹거리는 수다쟁이 새 같습니다. 실눈을 떠서 보니 아빠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나는 고소했습니다. 아빠가 계속해서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심란해도 말은 하고 살아야지요.”

아빠는 내 마음을 알았는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빠가 심란해하는 이유를 압니다. 그건 바로 5.18 사건 때문이에요. 저번에 낯선 남자와 아빠가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아빠는 서울에 있었고, 할머니와 삼촌만 고향인 광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연락도 끊기고,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대요. 아마도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였겠지요. 아빠는 자기 대신 광주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도와줬다는 데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광주에 내려갈 때 또, 5.18 사건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는 건지도 모릅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학원 가는 길에 필통을 빼놓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지각할까봐 급하게 집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 구두가 현관에 있었어요.

엄마를 부르려는데, 할머니 방에서 굶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형 데리고 중국으로 가겠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오는 게 점점 힘에 부치네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조용히 남편하고 상의하시지,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엄마는 평소와 달리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앞뒤 가릴 처지입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부모도 없이 어려서부터 형하고 저하고 단 둘이서 자랐다는 것도 알아주셔야죠. 하나밖에 없는 형하고 같이 살겠다는데, 너무하시는군요.”

남자는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쇼. 지금까정 서로 잘 지냈는데 이제 와서 으췌 이러요?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훌쩍거리는데, 왜 낯선 남자는 우리 할머니를 울릴까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안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빠도 없는데, 저 남자가 나쁜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알아야. 조용히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오메…… 내 자식, 내 아들…….”

할머니가 계속 ‘내 자식’이라며 울었어요. 만약 내가 필통을 놓고 가지 않았다면 위험에 처한 엄마와 할

머니를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님!”

수화기를 드는 순간,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합니다. 나는 빨리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어요.

“지수야! 빨리 전화해, 빨리. 구급차, 119로!”

엄마는 계속 119를 외쳤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부터 가끔씩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방 밥을 먹고 또 밥을 차리라고 했고, 엄마한테는 아줌마라고 했어요. 아빠는 치매가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게 다 그 남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할머니랑 엄마가 남자에게 돈을 빌린 건 아닐까요? 평소에 엄마가 돈 아껴 쓰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집이 빚더미에 올라서 돈 대신에 형을 데리고 간다는 건가 봐요. 그런데 그 형이 누구일까요? 남자는 아빠와 삼촌 단 둘뿐인데 말이죠.

“도훈이 너무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역시 삼촌은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눈치 없는 삼촌에게 한 마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사실 나도 아까부터 배가 고팠거든요.

“가까운 휴게소에서 뭐 좀 먹어요. 여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엄마는 삼촌을 힐끔 보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휴게소는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음식코너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삼촌이 밥을 먹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래요, 화난 사람처럼!”

엄마가 말없이 밥을 먹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가뜩이나 머리가 깨질 듯 복잡한데…….”

손가락을 내려놓고 아빠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큰 목소리에 놀라 나도 덩달아 손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소리 질러요? 나라고 뭐 속이 편한 줄 알아요? 그 남자는 계속 전화하지, 어머니랑 아주버니 돌봐야지, 살림해야지, 나도 정신없다고요.”

또, 으르렁거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엄마 아빠는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살벌한 분위기인데도 삼촌은 아빠가 남긴 음식에까지 손을 댑니다.

“그럼 이제 잘 됐네. 어머니 광주 내려가셨으니 흑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었잖아?”

어른들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던데, 다 거짓말인가 봅니다. 그나저나 삼촌이 이제 내 반찬까지 집어갑니다.

“왜 남의 음식에 손을 대? 자기 거나 먹지! 더럽게 정말.”

밥풀이 묻어 있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는 삼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윤지수! 너 삼촌한테 자꾸 그럴 거야?”

엄마는 정말 내 마음을 모릅니다. 작년 가을소풍 때도 삼촌 때문에 굶었는데 말이죠.

“지수야! 김밥 많이 쪄었으니까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온 집안이 아침부터 고소한 참기를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엄마처럼 김밥을 잘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날따라 삼촌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상대로 김밥 한 줄을 덥석 집어먹었어요. 내 도시락까지 먹을까봐 나는 얼른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수네 엄마 김밥 진짜 잘 만드신다. 저번에 놀러 갔을 때 먹어봤는데 완전 꿀맛이었어.”

미진이가 친구들에게 엄마 김밥을 자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어요.

“지수야, 나도 하나만 주라.”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먹으라고 많이 싸주셨어. 하나씩 먹어봐.”

하지만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야, 뭐야? 이게 도시락이야? 하하... 김밥이 있어야 먹지. 먹다 남은 거 싸왔어?”

용준이가 놀렸습니다. 도시락 통에는 달걀 몇 개의 김밥과 시금치만 널려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자기 것을 나눠먹자고 했지만 싫다고 했어요. 창피하고 속상해서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에서 시금치를 안 먹는 사람은 삼촌뿐입니다. 분명 도시락 통을 보고 욕심이 난 것입니다. 집에 와서 울면서 엄마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제 삼촌은 야단맞을 거예요.

“뭘 가시나가 목청이 이렇게 크냐! 아이고, 컵구녕 터지겠네.”

할머니는 무조건 나만 야단쳤어요. 삼촌은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솔직히 내 목소리보다 할머니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내가 서럽게 울자 엄마는 다시 김밥을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났어요.

아빠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도 삼촌이 흘린 음식을 치우고 차에 탔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집으로 전화해?”

다시는 엄마랑 말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아빠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썰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아직도 전화해요. 당신한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도 왔었어요. 이번에 한국 온다고 그러던데요.”

엄마가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이번에 한국 오는 게 마지막이라고 하더군.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

낮선 남자가 마지막으로 온다는 건 기쁜 소식입니다. 딱 한번만 오고 말 테니까요. 그런데 아빠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한숨도 쉽니다. 혹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남자에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닐까요? 잠깐씩 5.18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빠나 삼촌이 그때 남자를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려는 겁니다. 제발 그 남자가 아빠가 아닌 삼촌을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 남자가 말하는 형은 아무래도 아빠인 모양입니다. 나 같아도 어린애 같은 삼촌보다는 아빠를 선택할 테니까요. 큰일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거지가 될 게 뻔해요. 삼촌은 바보같이 먹을 것만 밝히고, 할머니는 나이도 많을 뿐더러 몸도 불편하고, 엄마는 이런 삼촌과 할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해요. 아빠가 중국에 가면 돈은 누가 벌지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낮선 남자와 아빠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나서야 광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왔는가? 얼른 들어가 보쇼.”

광주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빨리 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급하게 들어선 우리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흙에서 뿜힌 시들시들한 할미꽃이 누워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온통 흙투성이였어요.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고, 시큼한 냄새도 났습니다.

“나 혼자서 씻길 수도 없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야 말이제. 혹시나 저세상 가는 거 아닌가..... 겁나서 몇 번이나 숨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네. 참.”

광주할머니는 책 읽듯이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한숨 쉬며 밖으로 나갔고, 엄마는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느새 삼촌은 할머니 옆에 누워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동생이 데려가겠다고 했다면서, 언제까지 같이 살 거여! 보니까 엄니 몸도 안 좋아진 것 같은디…….”

광주할머니도 낯선 남자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완강하신 거. 사실 완강하다는 것보단 아들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겠죠.”

광주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제. 힘들다는 내색도 안하고, 엄니는 착한 며느리 뻘서 사는 거여.”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나 봅니다. 줌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매기도 더 심해졌나 봐요. 자꾸만 옆에 있는 ‘도훈이’를 찾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방이 하나라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장이라도 보는 건디. 혼자 사는 늙은이가 다 그렇게. 음식이 입에 맞을랑가 모르겠네.”

광주할머니의 걱정과 달리 저녁은 꿀맛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휴게소에서 조금 먹은 것밖에는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오랜만에 고향 밥을 먹어서인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불룩하게 나온 배를 두드리며 아빠가 말했습니다. 어느새 근심걱정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아빠가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수야, 안 피곤하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빨리 자.”

엄마가 삼촌 옆에 이부자리를 깔았습니다. 삼촌 옆에선 잘 수 없다는 걸 잊어버렸나 봅니다. 저번 명절 때 숨 막혀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어찌나 잠버릇이 고약한지 바위처럼 무거운 다리를 내 배에 척 올려놓았어요. 코까지 골면서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자신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버둥대는데, 정신없이 잠만 잤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지르고서야 바윗돌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할머니가 도와주었거든요.

“엄마 옆에서 자면 안 돼?”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삼촌 옆에 누웠어요.

밤이 깊어가는 데 줌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짜게 먹었는지 목도 말랐어요.

“자네, 자는가?”

갑자기 광주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내가 움찔한 것을 보진 못했나 봐요.

“아니요. 잠이 안 오네요.”

아빠도 깨어 있었습니다. 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올 것이네. 자네도 많이 놀랐제? 나는 처음에 헛것 본 줄 알았당께. 몸뚱이에 흠은 잔뜩 묻어가지고 차표를 손에 꼭 쥐고 있더라구. 내 열매나 놀랐는지……. 열매 있으면 형 기일이제? 아마 자네 엄니, 묘지에 갔다 온 모양이여. 그래,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할머니가 점점 삼촌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애처럼 흥장난이나 하고 말이죠.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만, 왜 갑자기 여기까지 혼자 오셨는지 궁금할 뿐이에요.”

아빠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자네 처한테도 말했는디, 그만 제자리로 돌릴 때가 된 것 같네만. 자네 엄니 건강도 안 좋아졌고, 중국에 있는 동생도 계속 연락한다면서. 그 동생은 중국에서 사업도 엄청 잘 된다는디. 아니, 돈을 떠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더 이상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디……. 당장 자네도 힘들지 않은가?”

아까 엄마에게 말한 거로는 부족했는지, 광주할머니는 아빠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불안했어요. 아빠가 중국으로 가겠다고 대답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오일팔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연락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거짓말만 하고 있지, 가족이라고는 엄마와 형뿐인데 생사도 모르지.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하던지…… 공부하겠다고 혼자 서울에 올라오지만 았았다면 형이 죽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휴…… 도대체 누가 폭도란 말입니까? 어머니 모시면서 동생 뒷바라지 했던 형이 폭도입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의 형은 내 옆에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데, 형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혹시 아빠에게 숨겨둔 형이 또 있는 걸까요?

“진정혀.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사람이 우리뿐이겠는가. 연탄구멍마냥 몸에 총구멍이 뚫려 온 자네 형 생각만 하든 내 자식을 잃은 것 같네.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저미는디, 자네 어머니는 오죽허겠는가.”

광주할머니는 참 이상합니다. 괜히 먼저 말을 꺼내서 아빠를 화나게 만드니 말입니다.

“어머니 심정िया 제가 잘 알죠. 오죽했으면 석우 형을……. 저는 석우 형한테 고마운 마음도 그렇다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석우,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혹시 죽은 형이라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 적어도 미워하면 안 되네. 따지고 보면 석우도 피해자여. 명령받고 내려왔는디 고향이었으니……. 동상 살리겠다고 집문 걸어 잠갔지. 또, 눈앞에서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오죽허든 농약까정 마셨겠어.”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무슨 심정으로 석우를 살려냈는지 아는가? 죽어가는 석우 얼굴이 자네 형 같았다.”

광주할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지수야, 빨리 일어나. 서울 가야지.”

엄마가 나를 깨웠습니다. 어제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도대체 자기 전에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생생한 꿈만 같습니다. 힘겹게 눈을 떴는데 할머니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매만져 있었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나 싶어 허벅지를 꼬집어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닌가 봅니다. 나는 할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습니다. 어제 오늘 도깨비한테 홀린 것만 같아요.

광주할머니는 이것저것 보자기에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나에게 줬어요.

“어머, 매번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애 버릇 나빠져서 안돼요.”

엄마가 계속 말렸지만, 할머니는 기어이 만 원을 쥐여 줬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용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지만 내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삼촌이 자꾸만 돈을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어요. 예전에 책상 위에 놓았던 돼지저금통이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알았어요. 삼촌이 돈을 쓸 줄 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금통을 찾다가 삼촌 손에 잔뜩 들려 있는 과자와 초콜릿을 봤습니다. 주머니에 동전도 많았어요. 범인은 삼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던 탓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꼭 참았어요. 어차피 뭐라고 해봤자 엄마나 할머니는 또 나만 혼낼 겁니다. 그 후로 용돈을 받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 숨겨놓곤 했습니다.

“엄마, 엄마! 나도 쥐. 도훈이도 돈 쥐.”

차가 출발하고, 삼촌이 내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 저금통 털어간 돈이나 갚아! 도둑질 했잖아!”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삼촌의 행동이 너무 미웠습니다.

“윤지수! 너 엄마한테 혼나야겠다. 삼촌한테 말하는 거 계속 고치라고 했지?”

엄마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크면 혼을 냅니다. 억울해 죽겠어요. 삼촌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에미는 엄마가 돼서 무조건 지수만 혼내면 안 되지. 가뜩이나 성치 않은 삼촌 때문에 어리광도 못 부리고 자랐는디. 애 기죽이지 말어.”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도훈이만 싸고돌지 말라는 거여. 누구든 잘못된 건 야단쳐야지. 그러야 애들한테 좋은 거여.”

엄마는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보았어요. 치매가 다 나은 걸까요? 평소에는 늘 삼촌 편만 들었는데 말이죠. 아니,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디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말한 대로, 엄마는 앞으로 내가 기죽지 않도록 혼내지 말아야 됩니다.

“어..... 어머, 당신도 방금 들었죠? 네? 지금 나만 잘못 들은 거예요?”

엄마가 입을 다물 생각을 안 합니다. 파리가 들락날락하겠어요.

“느그 부부,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야 헐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했는지 눈을 감았어요. 나는 할머니가 계속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날 차 안에서 할머니를 백 번도 넘게 부른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계속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고는 말도 백 번, 천 번 넘게 취소했습니다. 엄마한테 매일 혼나도 좋으니까 할머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삼촌하고도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영안실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빠는 문상객과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 속의 할머니는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있습니다.

“소식 듣고 왔습니다.”

어디선가 들어 본 목소리여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불현듯 한국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예.....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눈빛 같기도 했어요. 엄마랑 삼촌 그리고 나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아빠와 낯선 남자가 만났으니까요. 할머니도 하늘나라에 갔는데, 아빠마저 중국으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이 이야기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아빠가 떠난다고 하면 다리라도 붙잡고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남자와 아빠는 밖으로 갔습니다. 나도 빨리 뒤따라갔어요.

“아빠, 엄마가 할 말 있대요.”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아까부터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 말이 들리지도 않나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니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뜻하지 않게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이젠 정말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에 반해 아빠는 계속 말을 할 듯 말 듯 침만 삼킵니다.

“아빠, 저 배가 너무 아파요. 네?”

이번에는 피병을 부렸습니다. 아픈 척 배를 움켜쥐며 아빠를 잡아끌었어요.

“지수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지금 아빠 이야기 중이니까 여기 오지 말고!”

내 손을 놓으며 아빠가 말했습니다. 남자랑 같이 안 가겠다고 한 마디만 시원하게 해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아빠는 계속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나는 영안실로 들어가는 척하고 아빠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형 돌봐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보답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몸이나 성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안 된다고 하셔도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갈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따지고 보면 석우 형이 팔 하나 잃게 된 것도 다 도훈이 형 때문이지 않습니까? 친구 시신이라도 구하겠다고 계엄군이 사정없이 총을 쏘는데 달려 들었잖습니까? 운이 좋아서 팔에 맞은 거지, 잘못했으면 석우 형도 죽었을 겁니다. 물론, 어머니가 석우 형 살려주신 것도 압니다.”

남자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석우 형이 팔을 잃었다는 것도, 도훈이 형이 죽었다는 것도 모두 말이죠. 도훈이 삼촌은 지금 영안실 할머니 영정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없는 사람은 도훈이 삼촌이지 석우 형이 아닙니다.

“석우 형이 계엄군이었던, 저의 형 친구였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젠 무의미한 사실이니까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어머니가 생전에 석우 형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고, 석우 형도 우리를 가족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삼촌이 가짜였대요. 석우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도훈이 삼촌인 척했다는 거예요. 진짜 삼촌은 5.18 사건 때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석우 형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진짜 자기 동생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떨어져서 슬프고, 놀라는 건 잠시뿐일 겁니다. 중국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게 할 생각이예요. 그동안 제가 이를 악물고 돈을 번 것도, 형을 꼭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자는 아빠에게 거의 사정하다시피 말했습니다.

“당장은 대답 못 해드립니다. 시간을 좀더 주세요.”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금까지 가짜 삼촌하고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삼촌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고 있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계속 두리번거리는데 구석에서 음식을 허겁지겁 집어먹고 있는 삼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할머니랑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아빠랑도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왼쪽 소매가 힘없이 흐느적거렸습니다. 그 남자의 형이 삼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중국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삼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른들처럼 ‘석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할머니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영영 떠난 것이죠.

“지수야! 소포 왔네?”

엄마가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나는 풀어보지도 않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너는 어린애가 궁금하지도 않니? 빨리 열어봐!”

엄마는 나보다 더 신나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나, 지수가 좋아하는 분홍색 책가방이네!”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책가방이었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았지만 엄마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났거든요. 할머니의 장례식 이후로 아무런 말을 안 해줍니다.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이 5.18 사건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지 말이죠.

“편지도 있네? 우와, 우리 지수 오늘 기분 좋겠는데?”

엄마가 가방에 있는 분홍색 편지를 꺼냈습니다. 나는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말이 쓰여 있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지수에게, 보고 싶다. 사랑해. 석우 삼촌이.’ 편지엔 기대와 달리 뼈뼉뼈뼉한 글씨로 몇 줄 적혀 있었어요. 석우 삼촌은 병원 치료도 받고, 학교도 다니다더니 달랑 몇 글자

배웠나 봅니다.

결국 석우 삼촌은 그 남자와 함께 중국으로 갔습니다. 안 가겠다고 떼를 쓰다가, 비행기 탄다고 하니까 바로 가버렸어요. 정말 삼촌은 어린애입니다. 이젠 돼지저금통도 숨기지 않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광주할머니네 가면 널찍하게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지수야, 내일 광주 갈 때 이 가방 메면 되겠다.”

엄마의 말을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갖고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내일 엄마 아빠랑 국립 5.18 민주묘지라는 곳에 갑니다. 얼굴도 모르는 진짜 도훈이 삼촌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나는 더 이상 삼촌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은 중국에, 또 한 명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막상 아무도 없으니까 섭섭합니다. 하지만 용감한 삼촌들 덕분에 나는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을 안 해줘도, 이 정도는 나도 압니다. 그래도 솔직히 삼촌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은 예쁘게 하고 가야겠어요. 도훈이 삼촌과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요. 나는 종이로 만든 흰 국화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꽃은 시들지 않으니까 삼촌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묘지 옆에 예쁘게 꽃아놓을 겁니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